가정과 신앙

본문 : 창세기 11장 27절 - 12장 4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범으로 후대에 이름을 남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범으로 이름을 남겼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던 것일까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에서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듯이 족보와 관련된 본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가정도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와 그 윗대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족보가 있습니다.

성경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앞선 이야기와 전개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는 등장 인물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쌓는 성읍과 탑을 하늘에 닿게 할 만큼 높게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만드는 성읍과 탑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창 11:4,8). 이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 12:3).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던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서 다음세대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모인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웃, 교회와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족보를 계속해서 써 내려 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 24:2-3, 14-15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